

“주말엔 갈 곳 없어…누워 있으면 허리뼈 시려요”

❏ 쪽방촌 주민의 힘겨운 겨울나기

동구 대인동 여관촌…사고·부도로 내몰린 주민들
찬바람 새는 주거 환경…전기장판·온풍기에 의지

“보일러를 뜯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휴일에는 공공기관도 안 열어서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21일 광주 동구 대인동의 오래된 여관촌.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5도까지 떨어지면서 낡은 여관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드러난 채 문틈마다 찬바람이 스며들었다.

김복연씨(60)가 생활하는 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작은 전기장판과 1만원짜리 미니온풍기가 유일한 난방 수단이었다.

2~3평 낡ат힌 좁은 공간은 전기장판을 켜도 잠시만 따뜻할 뿐 금세 냉기로 가득 차다. 김씨는 “방 안의 기온이 밖과 별 차이가 없다.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춥다”고

말했다.

김씨는 원래 건설현장 일을 했다. 손도 아무저 남들이 꺼리는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전, 퇴근길에 당한 뺑소니 사고로 다리를 다쳐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긴 병원 생활 후 복귀한 현장은 그를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다. 장애가 남고 일도 끊기면서 여러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하다 결국 이곳 쪽방촌에 들어왔다.

사고 이후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종종 술에 기댔다.

김씨는 “몸이 아프고 일도 못 하니 술에 기대게 되더라”며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술이 먼저 떠



김복연씨는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영하 7.5도의 추위를 전기장판과 온풍기에 의지해 버티고 있다.

오른다”고 한숨을 쉬었다.

끼니 해결도 쉽지 않다. 평일 오전엔 무료급식소를 찾아 점심을 해결하지만, 주말엔 방 안에서 가스버너로 끓인 라면 등 즉석식품이 전부다.

김씨는 “뜨거운 것을 먹어도 방이 너무 차서 금방 식어버린다”며 “빨래 역시 찬물로 할 수 없어 대부분 외부 시설을 이용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곳에 수년째 머물고 있는 문정국씨(66)는 “예전엔 총장로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여가 때고 살던 때가 있었다”며 “부도와 이혼이 겹치며 삶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말했다.

가족과 연락이 끊기고 지인들과도 멀어지며 마음 둘 곳이 사라지자 쪽방촌을 찾

았다.

문씨는 “겨울에는 바닥이 너무 차서 누워 있으면 허리뼈가 시릴 정도다”고 말했다.

난방 시설이 안 된 방 바닥에서 냉기가 차오르고, 이불을 몇 겹 덮어도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는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샤워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추위를 참고 버티다 감기가 알아주는 적도 많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고립’이었다. 쪽방촌 주민들은 건강, 가족 문제, 사업 실패 등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이곳에 모여든 경우가 많아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리다 보니 방 문을 닫고 혼자 지내기 일쑤다.

문씨는 “한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다. 정말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추위와 외로움을 견딜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두렵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글·사진=임재웅 기자 djawodyd0316@

동구, 지역 문화유산 보존·정비 나선다

3억7000만원 투입…서석초 체육관·허백련 춘설헌 등

광주 동구가 지역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동구는 지역 주요 문화재의 보존과 시민들의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총 3억7350만원을 투입해 문화유산 정비 사업 4건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조선대학교 분관,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허백련 춘설헌 등이다.

이중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서석초 체육관 보수 사업은 전문가 자문과 설계 용역,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거쳐 2월까지 체육관 마루 보수를 진행한다.

1930년에 건립된 체육관은 내부에 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점이 특징으로, 동구는 체육관 내부 바닥 마루 보수 공사를 추진해 문화유산 가치(국가등록문화유산 제17호)를 높이 계획이다.

국가등록문화유산 제94호인 조선대학교 분관 내부 보수도 진행된다.

조선대 분관은 1946년 7만2000여명의 조선대학교설립동지회원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1947년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으로 건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직원과 학부모가 힘을 모아 1954년에 완공했다. 건물의 길이는 375m로, 건축 형태가 독특한 점 외에 설립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광주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다.

동구는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6459만원(국비 3229만원·시비 1614만원·구비 1614만원)을 투입해 분관(1~5층) 내부 벽체 균열을 보수



허백련 춘설헌

한다.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보물)은 배수체계 등 정비 사업을 통해 3월까지 웅성정비, 마사토 포장 등을 추진한다. 사업비 9000만원(국비 6300만원·시비 2700만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오층석탑과 불교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확인한다.

동구는 사업비 6891만원(시비 5857만원·구비 1033만원)을 투입해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허백련 춘설(광주시 기념물 제5호)의 처마·벽지 교체, 부엌·부뚜막 보수를 추진한다.

춘설헌은 한국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이 해방 직후인 1946년부터 1977년까지 30년간 살면서 작품활동을 하던 곳이다. 1950년 종래의 낡은 집을 헐고 벽돌로 새로 지은 건물로, 마루에는 춘설헌이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마루 왼쪽으로는 작품활동을 하던 2개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온돌방이고 하나는 일본식 다다미방이다.

동구 관계자는 “지역 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며 “정비 사업을 통해 ‘인문도시 광주 동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주민과의 대화 21일 오후 광주 광산구 신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6년 동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박병규 구청장과 주민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2월 25일까지 21개 동에서 실시되며 민원 문제 해결 이전 단계에서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행정 철학을 반영한 ‘민원 전 민원 해결 1004’ 추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정부의 국정 정책 철학과 연계한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과 공유하고 현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목포대, 취업률 67.5%…전국 글로벌대학 중 ‘톱5’

전년 대비 1.7%p 상승…경쟁률 7.2대 1로 전남 상위권

국립목포대학교가 2024년 전국 31개 글로벌대학 취업률 조사에서 67.5%로 톱5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전년도 65.8%에서 1.7%p 상승했으며, 이는 대학의 실무·현장 중심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과별 취업성과도 눈에 띈다. 약학과 96.6%, 건축학과 92.3%, 지적학과 89% 등 다수 전공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취업률을 기록했다. 의학계열에 국

한하지 않고 공학·사회과학·생활과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고른 성과가 나타났다.

목포대는 전공 전반의 취업 지표가 뒷받침되면서 지역 대학을 넘어 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학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업 성과는 신입생 모집 지표로 이어졌다.

목포대는 2026학년도 정시모집(도립 캠퍼스 정원내)에서 191명 모집에 1375

명이 지원해 경쟁률 7.2대 1을 기록했다. 지원 증가세는 취업성과 중심의 교육 경쟁력이 수험생들에게 신뢰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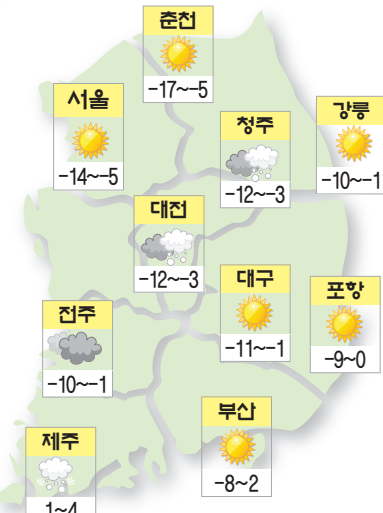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취업률 전국 톱5 달성은 학생들의 성장과 대학의 교육 역량이 맞물린 결과”라며 “정식 경쟁률 상승 또한 국립목포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용·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환경과 취업 지원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7:38	달출	09:35
해질	17:50	달입	21:18



광주		-8~0
목포		-6~0
여수		-8~1
순천		-9~0
구례		-11~1
광주	☁	-7~1
임도	☁	-5~2
흑산도	☁	-2~2
고흥	☁	-9~1
진도	☁	-4~1

목포	밀물(고)	04:07 / 16:43
	썰물(저)	09:27 / 21:59
여수	밀물(고)	11:28 / 23:37
	썰물(저)	04:55 / 17:32

광주·전남 ‘동장군’ 지속

아침기온 영하 10도 안팎
최대 10cm 많은 눈 예보

22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동장군의 기세가 매섭졌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22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 되겠다. 낮 기온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도 예보됐다. 찬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5~10도 가량 더 낮겠다.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서해안은 2~7cm(많은 곳 10cm 이상), 광주·전남중부내륙·서부남해안은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서해안에는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며 “전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에 대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낙상사고 책임 공방…병원-환자 갈등 ‘평행선’

척추 수술 뒤 팔꿈치 골절…CCTV 부재 속 다른 판단

피해자 “인정·사과 요구” vs 병원·공제조합 “과실 무”

대리수술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낙상사고로 의심되는 환자 부상과 관련해 병원과 환자 가족 간 책임 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과실을 부인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21일 피해자 가족 A씨에 따르면 2024년 8월 전남 고흥에서 발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80대 모친은 압박성 골절 진단을 받고 광주 서구의 B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았다. 문제는 퇴원 당일 발생했다.

A씨는 퇴원 수속과 병원비 정산을 마친 뒤 모친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모친이 “팔이 아프다”고 호소해 상태를 확인했다. 팔꿈치 부위는 심하게 부어

있었고 멍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즉시 병원 측에 상황 설명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답변만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간호사가 팔 상태를 확인한 뒤 허리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했음에도, 별도 진료 없이 정형외과를 안내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미 골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후 인근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X-레이 검사 결과, 모친은 좌측 척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다음 날 수술을 받아야 했

다. 수술 당일 B병원 관계자들은 약 300만원 상당의 치료비 지원을 제안하며, 향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했으나 A씨 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책임 인정이나 사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였다는 이유에서다.

합의가 무산되자 B병원 측은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병원 과실을 부인했다. 병원 측은 “입원 환자 정에서 팔꿈치 부위의 미세 골절이 뒤늦게 확인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은 “의사와 간호사 등 10여명의 심사위원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골절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리 골절 당시 촬영한 CT 결과지에는 ‘좌측 팔꿈치 골절 소견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퇴원 당일 간호기록지에는 ‘팔꿈치 부종·멍·통증 호소’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후

원 측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조정 결정 내리면서 피해자 가족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공제조합은 ‘초기 허리 골절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의 미세 골절이 뒤늦게 확인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측은 “의사와 간호사 등 10여명의 심사위원이 양측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며 “골절 발생 시점과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병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리 골절 당시 촬영한 CT 결과지에는 ‘좌측 팔꿈치 골절 소견 없음’으로 기재돼 있고, 퇴원 당일 간호기록지에는 ‘팔꿈치 부종·멍·통증 호소’가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후

재진 의무기록에는 ‘낙상 후 elbow(팔꿈치) 골절’이라는 표현도 포함돼 있다.

A씨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차량까지 이동하는 데 5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그 짧은 시간에 병원 밖에서 골절이 발생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의무기록과 정황을 종합하면 병원 내 낙상사고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가족은 금전적 보상보다 병원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